



[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디지털 혁신 승부수 05



Economy

코스피	1927.28 (0.00)	코스닥	691.93 (0.00)
금리 (미국 3년)	0.874 (+0.005)	환율 (원/달러)	1231.00 (+3.00) (1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다양한 경제·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언택트 서비스'가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클럽발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일요일인 17일 서울 용산 이태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이다. /뉴시스

# 생활 곳곳서 언택트화 미래산업 대격변 예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서비스산업 크게 위축

경영활용·소비행태 사회전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전개 4차산업 접목 새 가능성 열려

# 서울강북에 사는 유성진(가명)씨는 최근 집앞에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를 자주 이용한다. 이 가게는 사람이 없이 운영되는 데다 아이스크림이나 젤리, 세계 과자 등 여러 제품을 마음 편하게 고르고, 결제도 직접 해 편리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격도 기존에 이용하던 대형 마트보다 싼 것이 많다. 유씨는 "누구 눈치 볼 것 없이 고르고, 현금이나 카드를 선택해 결제까지 직접 하면 된다. 구입한 물건을 바코드로 손수 찍을 땐 '혹시 일부터 빼먹으면 (주인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것은 (고객들의)양심에 맡겨야 할 것 같다"며 웃었다. 물론 서너평 남짓한 가게는 주인 대신 CCTV가 손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언택트) 서비스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다.

코로나19로 음식·숙박업, 여가 및 문화 서비스업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반면, 한쪽에선 '언택트 경제'가 급부상하며 향후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시험무대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씨가 이용을 시작한 무인점포를 비롯해 유아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미 수 많은 사업군이 생기고 있는 온라인교육, 심지어 무인텔이나 무인주차장까지 기존 언택트 경제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다.

17일 통계청, 산업연구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전후인 2월 대비 3월 현재 '서비스업종별 생산지수'를 비교한 결과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은 -37.6%, 숙박업은 -35.5%, 음식점업은 -15.7% 등으로 한 달새 크게 떨어졌다.

특히 운수 및 창고업에 속하는 항공업은 이 기간 -42.5%로 추락했다.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도 37.6%나 하락했다.

음식점들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전후인 1월과 3월을 비교한 결과 고객이 감소했다는 업체 비중은 80.8%로 10곳 중 8곳의 손님이 줄었고, 평균 고객 감소율도 34.1%에 달했다.

코로나19로 관광객 입장을 전면 또는 일부 제한한 전국 관광지는 984곳, 취소된 지자체 축제는 178개에 달한다. 이동이 급격히 줄면서 특히 국내외 항공,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 등 수송분야도 크게 위축됐음은 물론이다.

산업연구원은 이처럼 코로나19가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비스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됐고,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회 전반의 변화를 유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이날 발간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서비스 모델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서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기업은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고, 소비역시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나 고객의 소비행태가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외식업의 경우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 배달앱 등 이용 증가 ▲영화·공연 등을 집에서 즐길 수 있는 OTT(Over The Top) 서비스 시장 성장 ▲학교나 학원의 등교·등원을 대체하는 온라인 교육 급성장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원격지 업무 지원 툴 시장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원격의료, 각종 온라인 생활편의서비스 등의 성장 가능성도 점쳐진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안방보험과 7조원 호텔 소송... 미래에셋, 승소 자신 이유는

## '매도자 소유' 입증서류 없어... 계약 원천무효

8월 24일 美 법원서 첫 공판

법정 다툼을 앞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거센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고급 호텔·리조트 15개의 권원보험(title insurance)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면서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최대 규모 해외 대체투자주 주목받으며 업계의 화두로 자리했던 초대형 딜의 결말은 오는 8월 24일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미래에셋은 안방보험과의 법적 싸움에서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매도자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권원보험 확보가 계약의 선결조건이었다는 것.

### ◆계약 체결부터 소송까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안방이 소유한 미국의 고급 호텔·리조트 15개를 총 58억 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 센터빌딩. /연합뉴스

후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를 납부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없던 일이 됐다. 안방이 거래종결 예정일인 지난 4월 17일까지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원보험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매도자의 소유관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매각 대상 15개 부동산 중 캘리포니아 호텔 6곳이 증서사기 소송에 휘말린 것이 발견됐다. 미래에셋은 이를 문제 삼고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15일 안에 권원보험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청했다.

미래에셋은 결국 지난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안방은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미국 델라웨어 형법법원에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황. 미래에셋도 응소·반소를 위해 국제분쟁 전문 로펌 피터앤김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 킨 엠마뉴엘을 선임하며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 ◆"권원보험 확보가 계약 선결조건"

양 측이 대립하고 있는 쟁점은 '권원보험 확보'가 '계약 선결조건'이었느냐다. 권원보험은 등기부 등본 속 이름과 실제 소유주가 다를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권원보험사가 소유권을 보증해주는 것을 뜻한다. 미국에선 등기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그 등기를 보증해주는 권원보험이 필요하다. <5면에 계속>

/송태화 기자 alvin@



현대차 임직원들이 본사 1층 로비에 설치된 역동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UAM, PBV, 허브(Hub)의 축소 모형물을 관람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 정의선, 현대차 본사에 미래車 비전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축소물 양재 본사 사옥 1층 로비에 설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지난 2018년 9월 그룹 경영을 맡은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직원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직장 내 복장 자율화, 호칭체계 단순화 등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위해 본사 내 공간을 활용해 회사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성을 공유한다.

현대차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0'에서 공개했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축소 모형물

을 양재 본사 사옥 1층 로비에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본사 로비에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모빌리티 환승거점(허브) 등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 모빌리티 모형을 전시했다. 현대차 로비에 주력 신차나 콘셉트카가 아닌 미래 모빌리티 모형이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최근에는 로비에 다양한 차량을 전시해 직원들간 전시 차량을 둘러본 뒤 직원들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현대차는 "구성원들에게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다 직관적으로 보여줘 현대차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수석부회장이

올해 CES에 직접 참석해 '인류를 위한 진보'를 이어갈 방안으로 현대차의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소개한 바 있다.

당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은 "UAM과 PBV, 허브의 긴밀한 연결을 통해 끊임 없는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현대차의 새로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은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류를 위한 진보'를 이어 나가게 할 것"이라며 "현대차는 이동 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도시간 경계를 허물고, 의미 있는 시간 활용으로 사람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목표를 이루며, 새로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역동적인 인간 중심의 미래 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